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 | | | |
|---------|-----------|--|---------|
| 시 험 시 간 | 100 분 | | |
| 지원학과(부) | 학과(부, 전공) | | 감독위원 확인 |
| 수 험 번 호 | | | ⑩ |
| 성 명 | | | |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 줄거리] 사장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근무 시간에 병원에 가는 헤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직속 상관인 은영에게 자르라고 제안한다. 은영은 헤미에게 조직 생활을 하려면 불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여자아이는 씩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을 보면 로봇처럼 어색하게 인사하고, 손님이 오면 주눅거리며 새로 산 차찬 세트를 들고 사장실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더 부지런해지거나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은영에게 더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은영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건 며칠 뒤였다. 과업 중인 A 자동차 회사에서 ‘긴급’이라고 적힌 공문이 날아왔다. 불법 과업 규탄 대회를 여의도공원에서 열 예정이니 협력업체에서도 직원을 한 명씩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장에서 참석 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얘기에 사장은 여자아이를 보내라고 했다.

“그 아가씨 하루쯤 없어도 괜찮지요?”
여자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저 여의도공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헤미 씨 여의도공원이 어디인지 모르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검색해서 찾아 줄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다리가 계속 아파서요. 저번에 소견서에도 적혀 있었잖아요. 3주 정도 안정하면서 관찰을 해야 한다고……. 그 규탄 대회 가면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소견서 받아 온 지 3주일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는데요.”
“헤미 씨,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단 가서 분위기 보다가 근처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쉬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 정 못 있겠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고.”

[중간 부분 줄거리] 은영은 사장과 협의하여 헤미를 해고하기로 한다. 은영은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사주기도 하지만, 헤미는 퇴직금을 요구하고,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다.

다음 날 사무실에 찾아온 여자아이는 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바로 나가지 않았다.

“과장님, 경력증명서 다섯 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아이가 물었다.
“경력증명서?”
“네. 전에 까먹고 못 받아서요.”

(그 증명서를 보고 너를 경력 채용하려는 회사가 나한테 평판 조사를 부탁하면 내가…… 아니, 됐어. 그런 걸 너한테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 너는 모르고 나만 아는 세계도 있거든.)

은영은 입을 다물고 영문 경력증명서를 다섯 부 발급해 주었다. 여자아이는 그 증명서를 유심히 읽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스태프 어시스턴트라고 돼 있는데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바꿔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혼자 총무일을 한 거지, 누구를 어시스턴트한 건 아니잖아요.”

은영은 여자아이가 원하는 대로 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여자

아이가 사무실을 나설 때 은영은 겨우 입을 열었다.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 돼 있던 거니?”
여자아이는 걸음을 멈췄다. 말문이 막힌 듯했다. 여자아이는 그렇게 몇 초간 꿈쩍 않고 서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자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여자아이는 가방에 손을 넣어 봉투를 확인했다. 봉투를 땅에 떨어뜨리고 돈을 잃어 버리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났다. (이렇게 주지 말고 계좌로 바로 부쳐 주면 좋을 텐데.) 건물을 나서자마자 은행을 찾아갈 참이었다.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여전히 발목이 아팠다. 인대 수술을 받느라 퇴직금을 다 썼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 장강명, 「알바생 자르기」

(나) 소설 읽기에서 소설과 독자의 관계는 소설로 형상화된 윤리적 가치를 독자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다. 독자가 작중인물과 서술자를 윤리적 가치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윤리적 가치 갈등을 체험하고 윤리적 가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소설 읽기는 윤리적 수행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소설 읽기는 독자가 소설 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매개로 작가와 좋은 삶의 가치를 소통하는 과정이 된다.

소설에서 ‘누가 말하는가?’로 표현되는 ‘서술자’와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로 표현되는 ‘초점화자’는 구별된다. 삼인칭 서술자 시점의 경우 목소리는 서술자의 것이지만 그 지각의 주체, 즉 초점화자는 작중인물인 경우가 있다. 이때 한 소설 안에서 초점화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작가는 초점화자를 바꾸어 서술함으로써 등장인물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한다. 소설의 장르적 규약으로 보자면 초점화자의 윤리적 판단이 곧 작가의 의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초점화자의 바뀔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 상황과 인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재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독자는 이렇게 설정된 ㉣서술자의 신뢰성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하면서 윤리적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

【1-1】 (나)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품 (가)에서 초점화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는지, 초점화자가 바뀔으로써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하시오. (180자 이내) (30점)

【1-2】 위 작품 (가)에서 ㉣서술자의 신뢰성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독자의 윤리적 읽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과 ㉡을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180자 이내) (3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가 혹시 사고가 났던 차가 아닌지, 중고차의 주인이 기계적 결함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것이다. 중고차의 주인이 알고 있는 중고차의 결함에 대해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면, 구매자가 차 값을 대폭 깎거나 구매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고차의 주인은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되도록 적게 알려주거나, 허위 자료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반면에 문제가 없는 중고차의 주인이라면 중고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려고 하겠지만, 구매자는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중고차의 품질을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하여 차 값을 깎으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품질 좋은 중고차의 주인은 매물을 철회하고, 문제가 있는 중고차만 남게 되어 결국 중고차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궁극적으로 시장이 사라지는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높은 가격에, 낮은 품질의 중고차는 낮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된다면 시장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겠지만,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보다 정보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비대칭 상황이 불가피하며, 이 때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이론은 기업을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계약의 집합체로 보고 각 집단이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조직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고 경영자는 주인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이때 주주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인 반면, 경영자는 위임계약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사용하는 재무보고의 대표적 수단이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다. 경영자는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부담한다. 주주 등 외부정보이용자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경영자의 수탁책임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이들을 위해 회계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이다. 같은 회계정보라 하더라도 내부정보이용자와 외부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에 대하여 부여하는 신뢰의 정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경영자를 포함한 내부정보이용자는 회계정보를 직접 산출했거나 회계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주주와 같은 외부정보이용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이 경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재무보고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당해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기업이 이러한 투자자의 정보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높은 자본조달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자발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

(*)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2-1】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직면하는 ‘역선택의 상황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2-2】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서 주주(또는 외부정보이용자)와 경영자 간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2-3】 재무보고는 ㉠과 같이 ‘자발적인 재무보고’가 있으며, 법규에 의한 ‘강제적인 재무보고’가 있다. 기업이 ‘강제적인 재무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강제적인 재무보고’가 왜 필요한지 대리인이론과 역선택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그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다”와 같은 진술을 도덕적 진술이라고 부른다. 도덕적 진술은 비도덕적 진술이 갖지 않는 특별한 문제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진술은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이 사과가 빨간색의 성질을 띤다는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고자 하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을 때 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진술은 어떤 사실을 기술하겠는가? 남의 돈을 훔친다는 행위를 아무리 조사해보아도 그것이 그르다는 도덕적 성질을 가짐이 밝혀질 것 같지 않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진술을 비도덕적 진술로 환원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 주관주의라는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진술은 화자의 감정을 기술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그르다.”는 진술은 “나는 남의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실제로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누군가가 “도둑질은 그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둑질에 대해 아무런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하자. 주관주의가 옳다면 이 진술은 도둑질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진술이 되어야 할 텐데, 직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주관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 공리주의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공리주의는 “행동 A가 옳다.”는 도덕적 진술을 “A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비도덕적 진술로 환원하여 이해하며, A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우 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이라고 본다. 공리주의가 옳다면, “행동 A는 옳지만 (㉢)”는 진술은 자기모순적인 진술이 되어야 할 텐데, 직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는 공리주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 언어는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사과 맛있네!”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이는 사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과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사과를 먹고 아무 말 없이 흡족한 표정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덕적 진술에 대한 ㉣ 표현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남의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그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화자가 불쾌한 톤으로 “남의 돈을 훔쳤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과를 먹고 흡족한 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참, 거짓을 따지는 게 말이 되지 않듯이, 도덕적 진술도 참,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다.”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릇된 일

이다.”를 부정하는 도덕적 진술이다. 도덕적 진술에 대한 표현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 이러한 부정문 진술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라는 진술이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라는 진술은 무슨 감정을 표현하겠는가?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유쾌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런 부정문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의 표현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

【3-1】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0자 이내) (20점)

【3-2】 ㉡과 ㉤이 각각 <보기>의 입장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보기>

사람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듯이, 사람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도덕적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르다고 하나, 그중 어느 한쪽만이 객관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다.

【3-3】 ㉢의 문제가 ㉠에도 적용되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예술 작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층계급은 미술 작품 등을 감상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상징, 화가의 화풍과 해당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그러나 상층계급의 이와 같은 취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러진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체득한 경험들이 이들의 취향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중적 취향을 가진 하층계급은 보자마자 혹은 듣자마자 즉각적인 만족을 주며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좋아한다. 상층계급이 선호하는 작품이 때때로 “이 그림은 대체 뭘 그린 거지?”라는 혼란을 야기하는 반면, 하층계급이 선호하는 작품들은 특별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대상을 밝고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낸 것들이다.

이처럼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선호나 취향을 개인이 보유한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취향을 가진 개인이 나고 자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긴밀히 연관된다. 예컨대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방학이 되면 대구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본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순수예술에 익숙해지며, 고급문화를 좋아할 확률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아진다. 또 다른 예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트로트를 구성지게 부르는 아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들이 조부모와 매우 가깝게 지내며 트로트 음악을 즐겨 들었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이 경우도 장르는 다르지만 앞서 순수예술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예술에 대한 취향이 경제적 측면, 즉 물질적 부와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사실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취향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간 가시적, 비가시적 경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수준에서 취향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은 사실상 동일한 계급적 배경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내집단으로 포섭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집단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계급적 배제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별짓기의 과정에 가깝다.

(나) 제도적 기관에서 예술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기능 습득과 숙련을 바라기 때문이다. 기타를 조금 잘 치고 싶고, 밴드의 꿈을 한 번 이뤄보려는 바람에서 동호회에 가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예술은 고전적인 창작과 감상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관객이 아니라 감상과 창작을 능동적으로 결합하고 자신만의 표현의 세계를 만드는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곳이 바로 생활예술 현장이다. 그렇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적 수월성에 따른 줄 세우기가 아니다. 실제로 동호회 가입 후 몇 주가 지나면 나의 만족에서 시작된 일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 오고, 일주일 만에 바뀐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며 이름을 기억한다. 경쟁과 이해관계 없이, 다만 같은 취미로 공감대를 이룬 관계라는 점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문화 공간은 수평적인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다. 수평적 소통은 생활예술 활동의 매력이자 특징이다.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기존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생활예술 활동으로 모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존 사회 안에서의 소득, 교육 수준, 직업,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구분선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생활예술은 경쟁을 요구하지 않고, 경쟁 없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기에 생활예술 활동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은 부담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호 공감하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술은 생활에 기초한 본능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때 오히려 아름답고 좋은 것, 즉 진정한 예술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속의 자기표현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
[4-1] 예술이 사회관계 안에서 하는 기능에 대한 (가)와 (나) 주장의 핵심적인 차이를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4-2] <보기>의 ㉠와 (가)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150자 이내) (20점)

————— <보기> —————

㉠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층계급은 하층계급이 좋아하는 예술적 형식들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클래식 콘서트도 가지지만, 록 음악과 같은 대중음악도 듣는다는 것이다. 즉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에 비해 싫어하는 예술 형식이 더 적고, 더 다양한 문화적 선택을 한다. 그러나 상층계급이 가장 싫어하는 형식은 하층계급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술적 형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4-3] <보기>의 예술가에 대한 생각과 (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천재는 전통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이다. 예술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러한 천재의 표본이다. 예술작품은 소수 천재의 소산으로서 본질적으로 유일무이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독특성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자질인 독창성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 용어는 언어로서의 일상적 쓰임새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정의된다. 그 때문에 동일한 표현의 용어라도 법적 의미가 관념상의 의미 보다 그 범위보다 넓거나 좁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주의할 것은 법에서 정의되는 개념에 따라 그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결정되고 수범자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도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법이 특정 용어의 개념을 넓게 정의할 경우에는, ㉠법의 적용대상이 넓어져서 보호 또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쉬워지는 반면에, ㉡규범 현실과 평균인의 관념 간의 이질성을 키워서 정당성이나 수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매수인과 소비자 개념을 예로 들어 보자. 이 둘은 모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경제 주체를 의미한다. 이 중 매수인은 그 개념 속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과 대등한 지위에 서 있으며 그 지위가 서로 바뀔 수도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이 사는 자와 파는 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중립적이며 매수인을 매도인에 비해 더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현실의 거래에서는 사는 이와 파는 이의 지위가 같지 않고 그 지위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일 사는 이를 매수인으로만 설정하면 사는 이가 겪는 불이익이나 양자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는 이들의 지위가 열등하면서도 잘 바뀌지도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사는 이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 법은 매수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용어로서 소비자라는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는 매도인이 아닌 사업자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즉 물건을 사는 이가 매수인인 경우와 소비자인 경우에 법이 취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며 후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다.

그렇다면 친구로부터 커피쿠폰을 선물 받은 ‘청년’,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콜라 한 박스를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음식점 ‘주인’, 국외출장을 위해 여행사로 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공무원’, 농사를 짓기 위해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입한 ‘농부’는 소비자인가, 매수인인가? 만일 이들이 입수한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이들을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그 여부는 법이 정의하는 소비자 개념에 따라 가려진다.

그런데 ㉢법에서 정의하는 소비자 개념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념적 소비자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면서 ①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②이를 생산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개의 자연인을 연상시키는 관념적 소비자 이외에 그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자도 법적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후자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국한되기 때문에, 가공단계에서 ③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와 중간재로 사용하거나 설령 최종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자본재의 용도로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자에게는 소비자 지위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회사가 사무용품으로 복사용지

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제품조립을 위해 로봇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볼 수 없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서는 ④「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도 동시에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모종이나 트랙터를 구입하는 농민은 비록 그 물건을 원재료나 자본재로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로 취급받는다. 이런 이들은 통상 소비자로 불리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인 영세 농어민을 소비자에 준하여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대규모 농장처럼 경제적 약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농업활동을 하더라도 소비자의 개념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조밀하고도 복합적인 소비자 개념을 적용해도 소비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법의 취지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한 유권해석을 통해 소비자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친구로부터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나 해외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한 공무원이 소비자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그런 유연한 법해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단, 소비자로 인정되면 그 상대방인 매도인은 사업자로서 많은 의무와 규제를 부담해야 하므로 법적 개념의 해석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1] ㉠과 ㉡의 상반된 관점에서 ㉢의 상황을 각각 평가해 보시오. (150자 이내) (20점)

[5-2] <보기>와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20점)

<보기>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소비재라 한다. 소비재는 자본재와 함께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최종재의 일종으로서, 편익을 받는 기간이 긴 내구소비재와 그 기간이 짧은 비내구소비재로 나뉘기도 한다.

- ㄱ. 원재료는 자본재가 될 수 없겠군.
- ㄴ. 소비재를 구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겠군.
- ㄷ. 소비재를 구입한 대규모 농장은 소비자가 될 수 없겠군.
- ㄹ. 자동차회사가 사무용품으로 구입한 복사용지는 비내구소비재이겠군.
- ㅁ. 경작에 활용할 목적으로 농민이 구입한 트랙터는 최종재의 일종이군.

[5-3] 위 글에 나타난 법적 소비자 개념의 유형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①을 ‘원칙’으로, ②는 그에 대한 ‘예외’, ③은 그 ‘예외의 예외’, ④는 그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관계로 설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200자 이내) (2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갑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주권자인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일정 기간(한국의 경우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주권을 위임하여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을 통해서 주권을 구현하는 체제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핵심 차원이다. 선거제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선거구의 크기와 당선자 결정 방식 등이 중요한 기준이다. 선거구 크기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구분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각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있고 각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각 선거구에서 평균 7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 방식은 득표수를 의석수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단순 다수제(plurality), 절대 다수제(majority),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와 같은 선거제도가 있다.

갑국은 총 300명의 의원을 지역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를 통해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갑국은 과거에는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작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변경했다.

| | (가) | (나) | (다) | (라) | (마) |
|----------------|-----|-----|----------|----------|-----|
| | 정당 | 정당 | 정당 | 정당 | 정당 |
| 정당 이념 | 극우파 | 우파 | 중도 우파 | 중도 좌파 | 좌파 |
| 5년 전 선거 의석률 | | 35% | 20% | 35% | 10% |
| 작년 선거 의석률 | 7% | 30% | 18% | 30% | 15% |

*대통령제하에서 집권당은 (라) 정당이였다.

【6-1】 다음은 5년 전과 작년에 실시된 갑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작년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점)

- ㄱ: 갑국은 우파정당 연립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 ㄴ: 갑국은 중도우파와 좌파의 연립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 ㄷ: 갑국은 중도파 연립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 ㄹ: 갑국은 극우 정당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 다음의 진술문을 읽고 갑국의 5년전 선거와 작년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영희> 갑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순수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브라질의 사례를 보자. 2014년 총선에서 임기 8년의 상원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무려 17개였다. 호세프가 이끄는 노동자당(PT)과 테메르 권한대행이 대표로 있는 민주운동당(PMDB), 사회민주당(PSDB) 등 주요 정당 중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운동당 의원도 단지 18명에 불과하다.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자당의 호세프나 롤라 전 대통령도 임기 내내 여러 정당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경향신문》 2016/08/24).

【6-2】 영희의 시각에서 볼 때 개헌 전 갑국의 정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또한 이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150자) (15점).

<철수> 갑국의 정치 상황에는 순수 내각책임제는 더욱더 작동하지 않는다. 내각책임제가 더 선진적인 정부 형태라는 주장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경우를 보라. 이탈리아는 1946년 공화국 수립 이래 75년간 무려 68개의 정부를 거쳤다. 정부 당 평균 존속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했다. 의회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이탈리아 정치 불안은 매우 크다. 지난 30여 년간 새로 취임한 이탈리아 총리는 13명으로 스페인과 스웨덴의 5명, 독일의 3명보다 훨씬 많다(《연합뉴스》 2021/01/29).

【6-3】 철수의 시각에서 볼 때 최근 갑국의 선거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판단 근거를 서술하시오. 또한 이를 극복할 방법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150자) (15점).